

##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 진정성 만들기

서영임\*

### 목 차

- |                    |            |
|--------------------|------------|
| 1. 서론              | 5. 결론      |
| 2. 선행연구검토          | 참고문헌       |
| 3.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관광지화 | <Abstract> |
| 4. 전통문화 진정성 만들기    |            |

### 국문초록

본고는 전통문화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 사례를 검토하여 관광생산자가 전통문화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을 어떻게 만들어나가고 있는지 그 양상을 연구하였다. 진정성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관광만족도, 장소 애착도, 도시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관광 욕구로 ‘일치하는’, ‘있는 그대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전주시는 먼저 전주의 황금시대인 조선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2000년대 이후 한옥보존정책을 펼치면서 전통문화거리를 조성하였다. 전주시는 관광지화 이후 나타난 여러 변화에 대응하면서 만들어진 경관이 유지될 수 될 수 있도록 행정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민들을 설득하여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된 공간에서 관광객들이 전통문화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기획자와 연계하여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문화기획자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전통문화 정책을 고려하면서 관광객들이 전통문화에 내재한 가치 또는 요소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문화기획자는 문화유산의 역사성이나 전승을 강조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 E-mail: rinaseo@naver.com

하기도 하고, 관광객과 전통문화, 관광객과 관광객, 관광객과 문화예술인 또는 운영자 사이의 충분한 상호작용을 도모한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해설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을 전주 부성이라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재인식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에게 한옥마을의 공간과 사람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전달한다. 본 연구는 내부 이해관계자인 마을 주민, 신예술가 집단, 결사체 또는 관광객에게 집중되어 있던 선행 연구에서 확장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이자 관광의 주요생산자인 지자체, 문화기획자, 문화관광해설사에 의해 진정성이 만들어지는 양상을 파악하였다. 관광생산자가 만들어낸 진정성은 관광객이 해석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전주한옥마을, 진정성, 한옥경관, 전통문화프로그램, 문화관광해설사

## 1. 서론

전주 한옥마을은 전주시를 ‘전통문화도시<sup>1)</sup>’로 인식시키는 중심적인 공간으로 700여 채의 한옥과 조선 시대 문화유산자원을 토대로 만들어진 전통이다. 관광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전통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매력물을 생산하고 있다. 관광객<sup>2)</sup>들은 지자체와 문화기획자가 주도적으로 만든 전통문화자원을 직·간접적으로 즐기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인솔하는 해설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진정성은 영어의 ‘authenticity’의 번역어로 사람마다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다. 연구자에 따라 ‘진짜’, ‘있는 그대로’, ‘원형’, ‘일치하는’ 등의 의미로 사용한다. 원본과 사본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진정성이 더는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관광학

1) 본 연구를 진행했던 2021년까지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전통문화도시’라는 도시 브랜드 슬로건을 전주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민선 8기 시정에서는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를 민정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전통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옥마을에서는 한옥 경관을 기초로 전통문화 프로그램들이 생산·소비되고 있으며, 관광객들도 여전히 ‘전통문화도시’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 오늘날 관광객(客)은 관광생산자가 만들어내는 관광매력물을 일방적으로 소비만 하는 행위자는 아니다. 자신의 경험을 사진과 동영상 같은 이미지로 만들어서 타인과 공유하면서 관광 장소 이미지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생산 주체이기도 하다. 이에 손님(guest)이라는 의미의 ‘관광객’ 대신 ‘관광자(者)’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자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관광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에서는 대체로 관광만족도, 장소 애착도, 도시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광 욕구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전주 한옥마을 관광지화 이후 상업화로 인한 변화 등을 보며 ‘정체성의 위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지역의 내·외부에서 정체성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이야기가 진정성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하는데 이는 곧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대내외적 평가일 수 있다<sup>3)</sup> 여기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민속촌과는 달리 주민들의 실제 거주지로서의 정체성과 전통문화도시 조성 이후 형성된 전통문화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평가가 중첩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은 여전히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고 있고, 이곳을 벤치마킹한 서울 은평 한옥마을, 경주 황리단길 같은 마을 단위 관광지들도 재생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 주민 구성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전통문화의 진정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전주 한옥마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관광학에서 관광객의 인식을 분석하거나, 보다 비판적 관점에서 마을 주민, 신예술가 집단, 결사체 같은 한옥마을 내부 이해관계자의 변화과정과 그 역학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 주도로 전통문화 관광 매력물이 생산되고 있기에 외부 이해관계자에 관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관광객의 전통문화 인식을 재구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자로서 지자체, 문화기획자, 해설사가 전통문화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을 어떻게 만들어나가고 있는지 그 양상을 검토하였다.

먼저 관광 연구에서의 진정성과 전주 한옥마을에 관한 기존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본론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이 관광지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전통문화가 관광매력물로 부상하는 과정과, 그 결과로 만들어진 전통문화자원과 프로그램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관광생산자인 전주시, 문화기획자, 문화관광해설사가 전통문화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조사와 참여 관찰, 비공식 면담,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전주시 한옥마을 정책 방향성과 진정성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전주시 의회 회의록과 전주시 시정백서, 신문기사를 검토했고, ‘관광산업과’, ‘전통문화유산과’, ‘한옥마을지원과’ 공무원 3명과 면담을 진행했다. 문화기획자가 전통문화를 활용하여 어떻게 진정성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문화예술공작소’, ‘사단법인 합굿마을’, ‘우리놀이마루달’, ‘부채문화관’을 운영하는 문화기획자와 한지공예 작가를 심층 면담하

3) 조아라, 2009, 『문화관광지의 문화정치와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 『대한지리학회지』, 제44권 제3호, 242-243쪽.

였다. 이후 관광객들과 함께 전통문화공연을 관람하거나 체험을 하면서 관광객들의 참여 양상을 검토하였다. 문화관광해설사와 비공식 면담을 진행한 후 해설투어에 참가하여 관광객들의 발화내용이나 행동을 분석하였다.

조사 기간 연구자는 전주 한옥마을 태조로 쉼터, 경기전 홍살문 앞 벤치, 한옥 텃마루에 걸터앉아 전통문화를 보고 즐기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관광객들이 일행들과 나누는 대화 내용에도 귀를 기울였다. 태조로 쉼터 등 한옥마을 내 휴게 공간에서 쉬고 있는 관광객들을 심층 면담하기도 했다. 관광객들의 인식과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20대부터 60대까지 40여 명의 관광객을 일차 면담했고, 그중 전주가 거주지가 아닌 20대부터 50대까지 16명의 관광객을 심층 면담하였다.

## 2. 선행연구검토

### 1) 진정성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기존의 논의들과 연결된다. 관광학에서 ‘authenticity’는 ‘고유성’ 또는 ‘진정성’으로 번역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성은 의미상 관광 주체의 인식을 반영하기에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진정성’을 사용하고자 한다. 진정성은 명사 ‘진정(眞正)’ 또는 ‘진정(眞情)’ 뒤에 대상의 성질을 의미하는 접미사 ‘-성’을 더하여 만든 파생어다. 따라서 대상의 참된 성질뿐 아니라 사람의 참된 마음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곧 진정성은 대상뿐만 아니라 대상을 경험하는 주체의 상태도 함의한다.

관광에서 진정성은 산업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서구사회에서 대량관광이 보편화 되고, 다수의 관광객이 상업적으로 연출된 코스를 똑같이 관람하는 과정에서 관광객들은 있는 그대로의 진정성을 경험하기 어렵다고 보았다(MacCannel, 1973). 반면, 진정성은 사람들이 각자의 상상과 기대, 선호와 믿음, 권력의 역학관계가 작용하면서 관광대상에 투영되어 구성되는 과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Cohen, 1988). 닝왕(Ning Wang, 1999)은 진정성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관광대상만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대상을 경험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로까지 확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관광지는 일상적 규범이나 제약이 약해지는 역치의 공간으로 관광객은 관광 활동을 하면서 진정한 자아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4)</sup> 그리고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여 진정

성을 객관적, 구성적, 실존적 진정성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실존적 진정성을 관광객 개인의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개인 내적 진정성과 관광지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상호주관적 진정성으로 세분화했다.<sup>5)</sup> 이후 진정성 연구는 닝왕이 제시한 3차원의 진정성 개념을 토대로 관광객들의 진정성 인식을 객관적, 구성적, 실존적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자도 진정성이 만들어질 수 있고, 관광지에서 관광객은 개인 내적으로나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아를 경험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전통문화 진정성을 검토한 기존의 논의는 지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지정 이후 관광객과 주민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이 구성되는 과정을 분석하거나<sup>6)</sup> 문화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유의미하게 생각하면서 객관적 진정성을 강조해왔다.<sup>7)</sup> 그리고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관광객들의 실존적 진정성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8)</sup> 정수진(2019)은 전통문화 진정성은 해석의 결과이자 문화정치 현상으로서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자도 이에 동의하며 전통문화 진정성이 재구성되어가는 과정을 검토했다. 기존에 진정성이 구성되는 과정을 검토한 연구도 있었지만, 한국인과 중국인<sup>9)</sup> 또는 일본인<sup>10)</sup>, 관광객과 거주민<sup>11)</sup>을 대상으로 했다. 본 연구는 지정문화유산도 아니고 정체성 논란도 있지만, 전통문화 생산과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주한옥마을에서 관광생산자가 진정성을 만들어가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관광생산자는 대체로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관광객이 관광 매력물이 전통문

4) 한국관광학회, 2019, 『문화관광론』, 백산출판사, 재인용, 128-131쪽.

5) 키무라시세이, 2016, 「진정성'구축과 복수성: 동아시아 군함도(軍艦島) 사례에서」, 『아시아리뷰』 제6권 제1호, 재인용, 318쪽.

6) 윤현호·이현, 2013, 「양동마을 전통의 구성적 진정성에 대한 에스노그래피」, 『관광학연구』, 제37권 제7호, 77-101쪽.

7) 심창섭·칼라산토스 2012, 「도시관광에서 진정성 개념에 관한 탐색적 고찰」, 『관광연구논총』 제24권 제3호, 33-56쪽.

8) 이금실 2011, 「증강현실 기술이 매개된 관광객의 문화유산관광지에 대한 진정성과 지각된 여행경험에 관한 연구-북촌 한옥마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발표집』 제69권 제1호, 879-890쪽 ; 박은경, 2013, 문화유산관광에서 진정성이 관광자의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하회마을을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 유창, 2013, 접촉지대로서의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의 안내사, 가이드, 중국관광객 간의 갈등과 타협,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키무라시세이, 2016, 앞의 논문.

11) 윤현호·이현, 2013, 앞의 논문.

화 요소와 일치한다고 생각하거나 관광객이 관광 매력물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했다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 2)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논의

슬럼화된 전주한옥마을이 ‘전통문화도시’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학문 분야별로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다. 관광학에서는 관광객을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는 주요 소비자로 바라보고 관광객의 한옥마을 방문 동기, 만족도, 재방문요인 등을 분석했다.<sup>12)</sup> 연구결과 관광을 유도하는 사회·심리적 관광 동기(추진요인)는 ‘지역음식 추구’, ‘경험 추구’, ‘친목 추구’, ‘휴식 추구’ 였고, 목적지 속성(유인요인)은 ‘전통문화’, ‘시설 편리’, ‘체험활동’, ‘음식경험’ 이었다.<sup>13)</sup> 관광객들이 가장 만족하는 요인은 한옥마을 ‘경관’으로<sup>14)</sup> 한옥 자체의 고유성과 예술성 그리고 독특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sup>15)</sup> 전통문화는 전주한옥마을의 주요한 속성으로 한옥 경관은 관광객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회학이나 인류학에서는 전주한옥마을 개발과정을 주로 비판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왔다. 한옥마을 방문객이 2002년 31만 명, 2013년 500만 명, 2016년 1000만 명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의 명암<sup>16)</sup>을 밝히고, 이해관계자들의 성격<sup>17)</sup>과 역학<sup>18)</sup>을 분석하면서 성찰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전통문화 관광지로서의 종합적인 검토는 다소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주한옥마을이 전통문화관광지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12) 심인보, 2012, 『전주 한옥마을 매력도 분석-방문객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제16권 제4호, 185-203쪽 ; 나희라·박은주·양수진·차연수·이민아, 2017, 『전주 한옥마을 음식문화에 대한 소비자 수요 요구도 및 만족도 분석:Push-Pull factor theory를 적용하여』,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제50권 제1호, 196-204쪽 ; 김연선, 2019,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의 관광동기가 만족도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1호, 196-204쪽.

13) 나희라·박은주 외, 2017, 앞의 논문, 198쪽.

14) 남진원, 2019, 전주한옥마을 방문수요함수와 소비자잉여 추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2쪽.

15) 김연선, 2019, 앞의 논문, 201쪽.

16) 진명숙, 2014, 『주거지에서 관광지로: 전주한옥마을 관광지화의 명암』,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7권 제1호, 177-208쪽.

17) 김동영, 2010, 『신예술가집단의 라이프스타일과 도심활성화: 전주한옥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44호, 3-36쪽.

18) 이선희, 2008, 전통문화구역 정책이 주민사회에 미친 영향: ‘전주한옥마을’을 사례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통문화자원과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여 관광생산자들이 전통문화 진정성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 3.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관광지화

#### 1)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관광지로의 개발과정

##### (1) 1990년대 이전

전주한옥마을은 전주시 교동·풍남동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이 일대는 조선 시대 여름이면 하천이 범람하여 수해가 잦았던 지역으로, 1930년대 전주천 제방 공사 실시 이후 다수의 가옥이 조성되면서 안정적인 주거지로 형성되었다.<sup>19)</sup> 이 지역 일대로 전북 공립 소학교, 사립 전주 해성 보통학교, 성심여자 중·고등학교, 전주 고등학교 등 주요 학군이 들어오면서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고, 신흥지주와 자본가들이 유입되면서 전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60~70년대 양육과 아파트 등 새로운 주거문화 양식이 유입되었고, 전주시에서 1970년대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도시공간이 재편되기 시작했다.<sup>20)</sup>

한편, 1970년대 국가적 차원에서 ‘지붕 개량 사업’을 실시하면서 한옥은 전근대적 삶을 상징하는 주택인 동시에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민족의 전통생활문화유산이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관광민속촌 개발 사업을 시작하고, 군별로 민속 보존 마을을 지정하였다.<sup>21)</sup> 이 시기 정부는 풍남동을 개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광과 교육 목적으로 전주와 남원을 연계한 ‘이조 문화권’ 설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총투자비는 18억 5천만 원으로, 풍남문과 그 일대를 재정비하고, 한옥 지붕을 검은색 기와로 바꾸는 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sup>22)</sup> 전주시는 1977년<sup>23)</sup> 풍남동과 향교 일대 288,000㎡를 ‘한옥보존지구’

19) 김윤상·신병욱·남해경, 2018, 『Space Syntax를 응용한 전주한옥마을 근대한옥의 평면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4(4), 대한건축학회, 35쪽.

20) 황인옥, 2014, 『이상주의적 구도심 보전 및 개발계획의 성립과 변형-전주한옥마을 조성사업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2(4), 71쪽.

21) 김지홍, 2014, 1960~70년대 국가건축사업과 전통의 재구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7-136쪽.

22) 이조 왕가의 발상지인 전주에 이조문화의 우월성을 고취시키고 교육 및 관광 효과도 높이자는데 목적이 있다. 투자비는 18억 5천만 원이며 우선 올해 2천만 원을 들여

로 지정하고 건물 신축은 1층 한옥으로 제한하였다. 제5공화국은 민족 주체성 확립을 정책의 주요 목표로 세우고 헌법에 ‘국가는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문화재청에서는 경주고도(古都) 개발 경험을 계기로 문화유적이 관광산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원형 복원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sup>24)</sup> 1981년 문화재관리국 직원들이 경기전을 방문하고 다음 해 ‘한옥보존지구’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구 내 건축물 분포 현황과 가옥 형태의 특징 등을 현장 조사하고 학술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관리방안을 재검토하면서 보존지구 축소 또는 문화재 보존지구 지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1987년 한옥보존지구를 제4종 미관지구로 변경하고 한옥의 개축과 신축을 허용했으나 양식, 구조, 형태를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한옥 형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20여 년간 구체적 실행 없는 계획만 수립되고 규제 중심의 보존정책이 이어지면서<sup>25)</sup> 마을은 점차 슬럼화되고, 도시 노동자들의 주거지로 변모했다.<sup>26)</sup> 다만, 유적은 사라진 역사적 실체를 재현하고 사람들은 유적을 통해 과거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기에<sup>27)</sup>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상공에서 바라본 한옥마을의 지붕 사진만을 담아 한국적인 장소라는 의미를 부여하거나 독자들의 향수를 자극했다.<sup>28)</sup>

## (2) 1990~2000년대

교육과 관광을 목적으로 한 ‘이조 문화권’ 지정 이후 20여 년간 이어져 온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주민들의 주거 생활 환경은 열악해졌다. 제6공화국 출

---

1차 사업을 끝내기로 했다. (중략) 보물 308호인 풍남문은 4억 원을 들여 직경 50m안에 있는 주변 건물을 철거, 5,848㎡의 광장을 조성한다. 8백 24채의 한옥이 모여있는 한옥보존지구는 4억 원을 들여 지붕을 검은색 기와로 바꾸고 담과 굴푼은 한식으로 모두 고친다(『동아일보』, 이조문화권 만드는 고도 전주. 1976년 10월 27일자).

23) 1977년 서울시 북촌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었다.

24) 백제문화권 문화유적지 보수정화사업계획은 경주고도개발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학술조사에 의한 원형발굴 및 보존에 역점을 둔 것이 특기할 일이다...10개년 계획에 빠진 충남 보령지구와 전북 전주지구 등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경향신문』, 문공부 문화재관리국 10개년 계획 확정발표 본격 착수. 1980년 3월 4일자)

25) 황인옥, 2015, 앞의 논문, 74쪽.

26) 김동영, 2010, 앞의 논문, 10쪽.

27) 오명석, 『1960-1970년대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담론』, 『비교문화연구』, 4, 127쪽.

28) 전주시 중심 통에 아직도 기와집들이 한국적인 멋을 자랑하며 모여있다. 도회지에 아직 이렇게 이마 맞대며 웅기중기 다정한 집들이 있음은 한 가닥 남은 희망인가, 결코 버릴 수 없는 향수인가(『동아일보』, 이조문화권 만드는 고도 전주. 1976년 10월 27일자).



범 이후 1991년 서울시와 경주시가 미관지구를 해제했다. 전주시 한옥마을 주민들도 미관지구 전면 해제를 건의함에 따라 1993년 해제를 결정했다.<sup>29)</sup> 전주시는 미관지구 해제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남고산성 내 약 3만 평 규모로 한옥 민속촌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약 18억 원을 투자하여 1만 2,500여 평의 토지를 매입하기도 했다.<sup>30)</sup> 그러나 접근성 등의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면서 전주시는 전동성당에서 리베라 호텔(현 라한호텔)에 이르는 길에 ‘민속의 거리’를 구상하고, 1997년 고도제한계획을 수립하면서 5층 이하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했다. 거주민들이 전주시의 일방적 계획에 거세게 반발하자 갈등이 심화 되었다. 월드컵 개최도시 결정 이후 전주시는 기존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1998년 ‘조선문화특구기본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유적지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거주민들의 주거환경도 개선하고자 했다.<sup>31)</sup>

한편, 민간차원에서는 1998년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몇몇 문화예술인들의 거점 역할을 하던 ‘다문’이 한옥마을에 입주하였다. 이후 국악인, 문인, 화가 등 일단의 문화집단들이 한옥마을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1999년 ‘산조 예술제’를 시작으로 자발적인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후 전주시 한옥마을 활성화 전략에 참여하면서 슬럼화된 한옥마을을 문화적 공간으로 변화시켜 갔다.<sup>32)</sup>

전주시는 이전의 계획들과 주민의 요구, 전문가 자문을 기초로 하여 2000년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02년 한옥 개·보수비 지원 및 한옥매수청구권 조항이 포함된『한옥보전지원조례』를 제정하고,<sup>33)</sup> 전주시 공동명칭제정위원회에서 주관한 공모전을 통해 마을의 공동명칭을 ‘전주한옥마을’로 명명하였다.<sup>34)</sup> 2004년 참여정부는 한옥마을의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지역혁신 성공사례로 전주시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선정하고,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였다. 이후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발족하여 토론회, 포럼, 팸투어 등을 실시하면서 <그림 1>과 같은 로드맵을 구상하였다.

29) 고평채, 2011, 전주한옥마을 보전정비사업에 따른 주거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8쪽.

30) 전주시 의회 회의록 제206회 제4차 본회의(전주시의회 홈페이지)

31) 황인옥, 2015, 앞의 논문, 80쪽.

32) 김동영, 앞의 논문, 6- 11쪽.

33) 황인옥, 2015, 앞의 논문, 84쪽.

34) 이선희, 2008, 전통문화구역 정책이 주민사회에 미친 영향: ‘전주한옥마을’을 사례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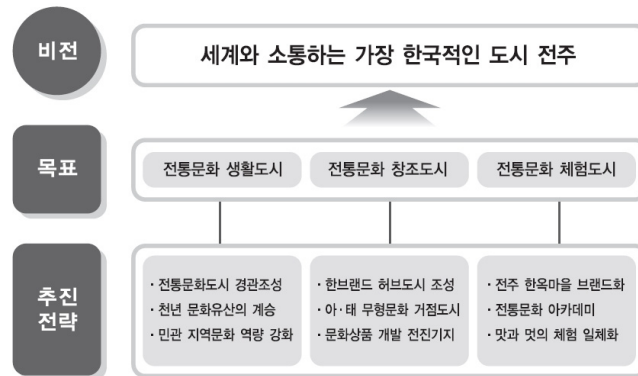


그림 1. 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sup>35)</sup>

## 2) 전통문화자원과 프로그램 현황

전주시가 1970년대 이후 한옥보존정책을 이어오면서 오늘날 735동<sup>36)</sup>의 한옥으로 구성된 한옥 경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져 전통 한옥과 일본식 가옥구조를 절충한 건물들도 많고, 1980년대 이후 지어진 건물들도<sup>37)</sup> 상당하지만, 전체 한옥 경관은 시각적으로 전통문화를 연상할 수 있는 주요 자원이 되었다. 다수의 한옥이 숙박 시설로 전환하면서 현재 207개소(2019년 기준)가 한옥 체험업을 운영하고 있다.<sup>38)</sup>

역사적 건축물로서 현재의 규모와 형태로 재정비한 풍납문과 경기전, 이목대와 오목대는 전주시가 조선 왕실의 본향(本鄕)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전통문화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일조했다.<sup>39)</sup> 태조 초상화 진본과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실록각은 전주한옥마을을 다른 장소와 차별화시켜주는 자원이다. 초상화 진본은 일반인들에게는 비공개 상태로 연 1회 특정 기간 전시를 제외하고는 어진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며 나라의 인재를 양성했던 전주향교는 조선 시대 유교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성균관 스캔들’, ‘구르미 그린 달빛’ 등 사극 드라마 촬영지로 관광객들에게 조선 시대를 연상시키는 장소이다. 전통성당은 조선 후기 유교와 천주

35) 전주시, 2014, 『시정백서』, 307쪽.

36) 전주한옥마을 홈페이지 <http://hanok.jeonju.go.kr/> (검색일: 2021.10.20.)

37) 홍성덕, 2015, 『전주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과 도시재생-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제48권, 46쪽.

38) 전주시, 2019,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

39) 홍성덕, 2015, 앞의 논문, 44쪽.

교 간 갈등과 천주교 박해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로 경기전과 마주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주동헌 건물이었던 풍락헌(豐樂軒)과 전북지역 가옥구조를 볼 수 있는 일송 장현식 고택, 임실 고택, 조선 시대 청소년들이 생원, 진사를 준비하던 양사재, 일제강점기 선교사가 사용했던 동락원이 있다.

소리, 부채, 출판, 놀이 등 전통생활문화를 주제로 한 10여 개 이상의 공공 문화시설이 산재해있다. 관광객들은 문화시설을 방문하여 모형화된 전시 등을 관람하고 전통문화 요소를 기초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전주는 2012년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로 선정될 정도로 음식문화 자원이 풍부하다. 한옥마을에서 맛볼 수 있는 전통음식으로는 비빔밥, 가정식백반, 한정식, 콩나물국밥, 떡갈비 그리고 전통주인 이강주와 모주(母酒), 막걸리가 있다. 전통음식에 대한 평가는 개인마다 취향과 식당 고유의 조리법, 분위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자원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전주 한옥마을 전통문화자원(연구자정리)<sup>40)</sup>

구분	전통문화자원
역사적 건축물	풍납문(보물 제308호), 전동성당(사적 제288호) 경기전(사적 제339호), 조경묘(지방유형문화재 제 16호). 예종대왕 태실 및 비(지방민속자료 제 26호), 태조어진(국보 제317호), 전주향교(사적 제379호), 한벽루(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 15호), 오목대·이목대(전라북도 기념물 제 16호), 학인당(지방민속자료 제8호), 양사재, 동락원, 풍락헌, 장현식고택, 임실고택
한옥	한옥735동(2022년 기준)
음식	비빔밥(김년임, 제39호 전통음식), 가정식백반, 한정식, 콩나물국밥, 떡갈비, 모주, 이강주(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6호), 막걸리
문화시설	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대사습청(구 소리문화관), 술박물관, 선비문화관, 김치문화관, 최명희 문학관, 공예공방촌, 공예품전시관, 전주전통한지원, 국악방송국, 한벽문화관, 강암서예관, 어진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전주한옥마을에서 관광생산자는 유·무형의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다. 경기전 내 어진박물관에서는 실감 콘텐츠 기술

40) 연구자에 따라서는 세계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근대 건축물 등은 역사문화자원으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 식, 주 같은 생활문화는 전통문화자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주한옥마을의 경우 700여 동의 한옥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져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역사문화자원과 전통문화자원을 구분하지 않고 전통문화자원으로 사용했다.

을 활용하여 태조어진 이안행렬도 색칠하기, 초상화로 사진 찍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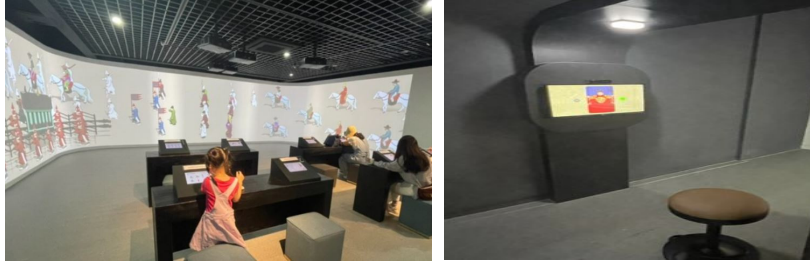


그림 2. 어진박물관 실감 콘텐츠 프로그램<sup>41)</sup>

거점 역할을 하는 문화시설에서는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유·무료로 진행한다. 전주향교에서도 고전 강독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유교지원국고보조사업’으로 1박 2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경기전 탐방 후 시조창 배우기, 향사례, 한지공예를 체험한다.

한옥마을에는 조선 시대 역사문화 이야기로 구성된 총 8개의 코스의 해설투어 프로그램이<sup>42)</sup>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ICT 기술을 매개로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여 관광객이 자율적으로 한옥마을 여행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벤트성 프로그램으로 ‘문화재 야행’과 ‘비빔밥 축제’가 열린다. 2022년 10월에는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에서 주관한 ‘조선왕릉문화제’가 열렸다. 경기전 내 부속 건물 내에서는 ‘경기전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자신이 맡은 캐릭터와 어울리는 목소리와 몸짓을 하면서 관광객들에게 경기전 역사 이야기를 들려준다. 야외마당에서는 판소리나 민요 같은 전통음악공연이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민간단체인 ‘풍석재단’과 한옥 체험업 운영자가 전통문화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기도 한다. 공예작가들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최근에는 모기업에서 ICT 기술과 방 탈출 게임, 그리고 역사 이야기를 접목한 융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1) 전주여행후기, <https://blog.naver.com/zjavbxj5175/222765355316>(검색일 2022.10.09.)

42) 해설투어 8개 코스명은 다음과 같다. 경기전 역사투어, 한옥마을 골목길 투어, 향교 선비길투어, 태조이성계로드투어, 전주부성 옛길투어, 전라감영투어, 유산과 예술마을 투어



그림 3.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자원 지도(연구자 재정리)

#### 4. 전통문화 진정성 만들기

##### 1) 전주시

##### (1) 물리적 경관 재구성

공무원들은 전문가와 각종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서와 보고서를 기초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관광산업과 공무원A). 1990년대 이전에는 규제 일변도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공무원들은 주로 한옥마을 내 조선시대 문화재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공무원들은 요즘처럼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신뢰할 만한 전문가를 초빙하고 그들의 자문을 토대로 예산을 세워 풍남문이나 경기전 등 문화재가 잘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전통문화유산과 공무원B).

1970년대 풍남문을 재정비하고, 1980년대 약 66억 원의 규모로 경기전 복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1990년 전라북도가 중앙정부에 경기전 사적 지정을 요청하고, 1991년 경기전이 사적 제399호로 지정·고시되었다. 경기전이 문화재로 사회적 위상이 승격됨에 따라 전주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경기

전 정문과 담장을 보수하고 정유재란 때 불타 없어진 전주사고를 복원하였다. 일제강점기 경기전 내 지어진 중앙초등학교가 경찰청 기동대 자리로 이전하고 약 7년간의 발굴조사와 복원사업을 거친 후 2005년 부속 건물 9동을 포함하여 오늘날의 경기전 규모와 형태로 만들었다. 이후 경기전 건축물뿐만 아니라 진전에 모셔진 태조어진 관리·보수 방안을 두고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 이후 전주시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비전 아래 ‘전통문화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했다. 전주시는 주로 물리적으로 한옥마을의 시각 세계를 재구성하여 전통적인 한옥 경관을 만들어갔다. 2009년까지 총 사업비 700억 원을 투자하여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옥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고, 전통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여러 문화시설을 건립했다. 구체적으로, 2002년 개정된 『한옥보존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거주민들이 한옥을 수리할 경우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했다. 그리고 한옥마을 내 골목길을 정비하여 전통문화거리를 조성했다. ‘흑두기마감’, ‘다듬이형식’ 등 전통건축기법을 활용하여 보도를 만들고 호박돌, 벽돌, 전돌 등을 사용해 ‘지붕 기와 + 흙 + 기와 또는 화강석’ 구조로 전통미를 가미하여 담장을 쌓았다. 태조로에는 회화나무 70여 그루를 심고, 전기와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을 지중화하였다. 은행로에는 자연스러운 곡선 형태의 실개천을 조성하고 자투리 부지에 솟대, 물레방아, 정자, 인공 폭포 등을 설치하여 전통적인 분위기의 정원을 조성하였다.<sup>43)</sup>

이외에도 전주류씨 문중에서 재실로 사용하고 있던 풍락헌(구 전주부 동헌, 1891년 중건)과, 장현식 고택(1932)과 임실 진참봉 고택(건축 연도 미상) 등을 전주향교 옆 부지로 옮겨왔다. 그리고 청명헌, 승광재, 삼도헌, 공예공방촌, 최명희 문학관 등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옥문화시설을 건립하였다. 관광객들은 전통적 요소를 기초로 만들어진 이미지로 둘러싸인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시각화된 전통문화를 만나게 된다.<sup>44)</sup>

전주시는 2020년 관찰사 집무실인 ‘선화당’을 중심으로 전라감영 동편을 부분 복원했다. 경기전에서 풍남문, 전라감영과 객사를 연결하여 과거 호남의 수도였던 기억을 강조하며, 전주의 위상을 높이고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

43) 고평채, 2011, 앞의 논문, 37쪽.

44) 김영훈, 2000, 『전통문화의 시각원리 연구-영상인류학적 모색』, 『민족과 문화』, 제9호, 370쪽. 369-385쪽.

## (2)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확대

전주시는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을 종합적인 전통문화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에 서 주관하는 전통문화 분야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예산을 마련하고, 한(韓)브랜드과를 신설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행정 인력을 확충했다. 지역의 문화 기획자, 예술인들과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이들에게 위탁하여 이벤트성 행사를 기획하고, 한옥생활체험관, 전통술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운영하게 하고 있다.

2001년 문화관광부(현 문체부)가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전주시에서도 해설사를 양성했다. 경기전과 한옥마을 골목길에 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전통생활문화를 소개함으로써 판소리, 한지, 합죽선 등 전주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sup>45)</sup>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전통한옥체험 숙박 시설 운영 지원 및 공모사업(2006~2013)’을 추진하여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옥체험관, 삼도헌 등 한옥에서 다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전라북도 ‘한옥자원 활용 야간 상설공연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부채문화관, 소리문화관 같은 문화시설에서 판소리, 마당 창극 등 다양한 전통문화공연을 했다.

단기의 이벤트성 행사로는 2012년 경기전 태조어진이 국보 제 317호로 승격된 것을 기념하면서 ‘태조어진 이안행렬’을 재현하였고, 2018년 전주 기집놀이 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63호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면서 ‘전통연희 퍼레이드’를 개최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 퍼레이드는 관광객들의 호응이 좋아 매주 토요일 정기 행사로 확대되어갔다. 관광객들은 조선 시대 신분과 직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복을 입고 연희공연을 하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전통음악을 귀로 들으면서 사진이나 텍스트로 접하는 것보다 생생하게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전주시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한옥마을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2008년 ‘대문 여는 날’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으나 일회성 행사로 그쳤다.<sup>46)</sup>

## (3) 협조 요청과 행정 규제 강화

전주한옥마을이 관광화되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 숙박 및 상업 시설이 많

45) 전주시, 2014, 앞의 책, 237쪽.

46) 진명숙, 앞의 논문, 202쪽.

이 증가하였고, 한옥마을 정체성 논의가 이슈화되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주시는 여러 차례 공청회를 열어 마을 구성원들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고, 한옥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건물주들이 단층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고, 한식 이외 다른 종류 음식점은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며, 상인들이 건물 외관을 기준 이상으로 개조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2017년 상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전주시가 패소했고, 법원이 용도변경 의미를 축소 해석하여 업소 간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본 전주시는 항소를 제기했다.<sup>47)</sup>

90년대 이전과는 정치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공무원들은 법적 테두리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사회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깊이 있게 모색하기보다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재를 복원하고 한옥 경관을 조성하고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하면서 전통적인 이미지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저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매입을 해야 하는데 한옥마을이 부동산 단가가 높다 보니 주민들은 최고가액 보상을 원하고, 그런데 국가 예산으로 토지 매입은 불가능하거든요. 시비든 도비든 예산이 녹록지도 않고, 공청회를 하고 찾아가서 계속 설득하고 이게 보완방법이죠(공무원C)

관광객들은 대체로 한옥마을이 주민들의 거주 공간이라는 사실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다. 관광생산자에 의해 만들어진 한옥 경관을 보면서 과거와 현재가 이어진 듯한 활기찬 느낌을 선호하고 여러 차례 방문하기도 한다. 관광객 중 일부는 경기전, 전주향교, 학인당 등 문화유산 이외의 주요 가로경관에서는 한옥이라고 했을 때 흔히 기대되는 고즈넉함 같은 정서를 경험하기 힘들어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전주시는 이러한 관광객들의 비판을 인식하여 한옥마을을 1910년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근대 주거문화의 발달과정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마을의 종합적이고 역사적 맥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전주한옥마을 역사관을 조성하여 마을의 변화상 전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옥마을이 특정

47) 『경향신문』, 전주시 행정심판 패소, 2017.1.23.



시점에 만들어진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백 년의 역사가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또한, 물리적으로는 전통건축물 디자인과 요소를 사용하거나, 전통수종 위주로 정원을 만들어 한옥마을 경관을 재구성하고 있다.<sup>48)</sup>

## 2) 문화기획자

1990년대 후반부터 ‘산조예술제’ 같은 문화행사를 운영하면서 관 주도 행사와 차별성을 보였던 민간문화예술단체들은 2003년 이후 점차 한옥마을로부터 이탈해갔다.<sup>49)</sup> 2021년 현재 상인들이 주도하는 한복·한식·한옥체험과 공예작가들이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전통문화 프로그램은 대부분 관 주도로 문화기획자들이 전주시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옥마을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는 전주시 또는 중앙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고려하면서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전시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관의 정책 방향은 개별 프로그램 구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문화재 보존을 넘어서 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재를 밤에 열게 됨으로써 지속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광 효과가 일어날 수 측면을 바라본 것이 아닌가. 지역에서 밤에도 문화재를 즐길 수 있는 자원화할 수 다양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는 거죠.(중략) 여기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400명의 정도예요. 우리 행사도 중요하지만, 행사를 구성했던 사람들 때문에 잘 됐던 거예요(문화기획자A)

2002년 전통술박물관, 한옥생활체험관, 전통문화관, 공예품전시관 개관을 시작으로 건립된 10개의 공공문화시설은 한옥마을 전통문화관광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sup>50)</sup> 오늘날에도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문화시설 이외에도 전통문화사업을 주관하는 문화통신사, 문화예술공작소, (사)전통문화마을, 풍석재단 등 여러 민간단체에서는 관광객들이 전통문화를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48) 서영임, 2022,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관광에서의 진정성 해석과 협상』, 『지역사회연구』, 제30권 제2호, 195-196쪽.

49) 진명숙, 2017, 『전주한옥마을 관광지화와 결사체정치』, 『비교문화학』 제63호, 176쪽.

50) 진명숙·황인욱·허명숙·이근영, 2014, 『전통문화도시 조사·기록화 사업: 2년의 기록』, 전주문화재단, 66쪽.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는 일상에서 단절된 전통문화를 현대화·대중화하여 계승할 필요가 하다고 생각했다.

프로그램이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지역에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중요한 것은 선조들이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 왜곡되지 않게(문화기획자A) 요즘 시대에 맞춰 계승하지 않으면 끊어진다. 전통은 전통대로 있고, 저희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이벤트를 통해서 인식을 개선하고, 그게 현대화라고 생각하는 거죠(문화기획자B)

### (1) 역사성과 전승 강조

문화기획자는 전통문화 진정성을 만들어가기 위해 개별 전통문화의 특성에 따라 조선 시대 임금의 진상품으로 명성을 얻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거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공식적으로 유·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그 인지도를 종종 활용한다. 부채문화관<sup>51)</sup>은 부채 전시와 판매 그리고 체험활동을 매개로 부채 장인들이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관광객은 문화기획자가 선택적으로 구성한 시청각 자료를 관람하면서 전주 부채의 역사와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전시실 게시판에는 두 개의 대나무 살을 마주 붙인 접선의 견고함과 우수성, 부채의 용도와 형태에 따른 차이, 단오 절기에 부채를 선물하던 선조들의 세시 풍속 등 부채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전주부채가 조선 시대 진상품이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진상품은 과거 최상의 품질이었을 것이라는 대중적 상상을 통해 전주부채의 품질과 우수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조서왕조실록』태종15년 5월 조와 세종 8년 5월 조, 『경도잡지』, 『동국세시기』 등의 문헌을 보면 단오진선, 단오사선 등 단오와 부채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우리 속담에 “단오 선물은 부채요, 동지선물은 책력이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단오가 가까워져 오면, 친지와 웃어른께 부채를 선사하고, 동지가 가까워져 오면 새해 책력(달력)을 선물하는 풍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51) 부채문화관은 2014년 이후 사단법인 ‘문화연구 창’에서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공조(工曹)에서 단오부채를 만들어 임금께 진상하면 임금은 그것을 신하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이 부채 중에서도 전주에서 만든 것을 으뜸으로 쳐주었다.<sup>52)</sup>

또한, 역사성이 있는 부채의 명맥을 오늘날에도 유지하기 위한 장인들의 정성과 노력을 시각화한다. 전시관 입구 왼쪽에는 부채 제작 단계별 실물을 전시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원통형의 굵은 대나무가 가느다랗고 얇은 부챗살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과거 가내수공업 생산체계에서는 한 개의 부채를 만들기 위해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는 걸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선자장이 세심하고 숙련된 손길로 합죽선을 만들고 있는 영상물도 전시되어 있다. 전시 홍보물에는 장인들의 문화재 지정번호를 명시하면서 그 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전승 문화를 강조한다.



그림 4. 부채 제작 과정(좌), 부채문화관 전시 포스터(우)<sup>53)</sup>

## (2) 충분한 상호작용 유도

문화기획자는 관광의 장에서 관광객과 전통문화, 관광객과 관광객, 관광객과 문화예술인 또는 운영자가 충분히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일상에서 단절된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문화기획자는 관광객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하기도 한다. ‘우리놀이 마루달’은 방문객들이 전통놀이를 즐기면서 공동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통놀이는 명확한 역사성은 부족하지만,

52) 부채문화관 전시실의 설명문.

53) (우) 인스타그램 전주부채문화관 <https://www.instagram.com/jeonjufan/?hl=ko> (검색일 2022. 08. 02), (우) 연구자 촬영

문화기획자는 관광객이 옷놀이, 투호, 고무신 던지기, 비석 차기 등을 하면서 타인과의 감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콘텐츠가 뭘까 고민을 했고, 우리의 역사성을 가진 전통놀이가 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해서 아날로그형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해서(중략) 부모가 아이들한테, 아니면 할아버지가 손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중략)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쌍륙이나 화가투를 전문 연극 배우랑 같이 하는 콘서트를 진행할꺼예요(문화기획자B).

방문객이 솥을대문을 지나 마당 안으로 들어가면 한옥 공간에 다양한 놀이가 비치되어 있다. 야외마당에는 ‘고무신 던지기’, ‘제기차기’, ‘비석 치기’, ‘딱지치기’ 등의 놀이가 있고 뒷마루에는 공기가, 실내 공간에는 판 놀이가 준비되어 있다. 가장 큰 방에는 4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고누두기’와 ‘쌍륙’이 있고, 작은 방마다 전통놀이 도구들이 있다. 판 놀이의 경우 놀이규칙을 알려주고 진행을 도와주는 강사들이 있다. 강사들은 놀이를 진행하면서 전통놀이와 지역과의 관련성을 만들기 위해 관광객들에게 풍남문 2층 누각에 올라가면 과거 병사들이 놀았던 고누판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언급할 때도 있다.

문화기획자는 놀이판 디자인과 형태, 내용 등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관광객들이 놀이에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세시 풍속을 현대화하여 정월 대보름에는 ‘호두 까기’, 삼짇날에는 각시 폴로 인형을 만들어 ‘폴각시 시집보내기’ 같은 놀이를 진행하기도 한다. 중·장년 관광객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향수를 느끼기도 하고, 함께 여행을 온 일행들 또는 운영진들과 감각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진정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림 5. 우리놀이 마루달에서 체험 중인 관광객<sup>54)</sup>

한옥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공예 작가들은 한지공예, 매듭공예 등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지공예작가 P씨도 자신의 공방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녀의 공방에는 한지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벽에는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웃고 있는 한지 인형들과 거칠고 질긴 닥 섬유와 특성이 잘 나타난 작품이 걸려있다.

P씨는 체험을 진행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체험의 주재료인 한지가 전주전통 한지원에서 직접 손으로 뜬 것이라고 말한다. 한지 고무신을 장식할 색 한지는 은은한 색감을 띄고, 전통문양이 있는 것으로 준비한다. 그리고 요즘에는 일상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밀가루 풀을 그릇에 덜어서 관광객들이 사용하게 한다. 이는 평소 P씨가 자신의 한지 작품을 만드는 재료와 같다. P씨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지공예를 처음 접하는 관광객들에게 한지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손으로 뜬 한지를 처음 만져본 관광객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인 P씨, 한지, 그리고 함께 참여한 일행들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통해 전통문화의 부분적 요소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림 6. 한지공예 작가와 체험 중인 관광객(연구자 촬영)

사단법인 ‘합굿마을’은 무형문화재인 기점놀이와 전주의 구전 노동요, ‘용’에 관한 설화를 기초로 ‘용을 쫓는 사냥꾼’이라는 마당 창극을 하고 있다. 문화기획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친숙한 ‘용’을 마당 창극의 주요 소재로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기점놀이나 노동요 같은 전통문화를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마당 창극의 배경 음악은 전통음악을 전공한 문화예술인들이 한옥 무대 마루에서 직접 연주한다.

문화기획자는 현대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전통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54) 우리놀이 마루달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aver?blogId=ktcc\\_play](https://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aver?blogId=ktcc_play)(검색일 2022.10.21).

젊은 세대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시나리오 완성 후 시범운영 기간을 통해 관객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내용을 수정한다. 다양한 연령대의 관광객들이 핸드폰을 보지 않고 끝까지 80여 분의 공연에 몰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핸드폰을 본다는 것은 관광객과 출연진의 상호작용이 그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 공연에서 관광객들은 대체로 열정적인 태도로 공연에 임하는 예술인들과 호응하면서 관람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7. 마당 창극을 관람 중인 관광객(연구자 촬영)

문화기획자들은 낯선 전통문화와 친숙한 대중문화를 연결하면서 관광객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문화예술공작소에서는 문화제 야행 기간 ‘좀비 실록’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조선 시대 정유재란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경기전 내 전주사고가 있었고, 조선의 4대 사고 중 하나로 임진왜란 당시 선조들이 유일하게 지켜낸 곳이라는 사실을 기초로 이야기를 구성했다. ‘좀비 실록’은 야외방 탈출 게임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광객이 잃어버린 한 권의 실록을 찾아야만 게임이 종료된다. 좀비라는 소재가 경사스럽다는 의미의 경기전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문화기획자는 조선왕조실록의 가치를 대중들이 인식하고 실록에 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두었다.

엄청나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일상에서 접하지 않는 전통을 만남으로써 전통의 가치를 알게 되고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나, 예를 들면 조선왕조실록에 콘텐츠를 입히면 더 잘 기억할 수 있죠. 전통의 범주 내에서 활용해야죠. ‘좀비 실록’의 경우 조선왕조실록 중 한 권이 없어진 것으로 가정을 하거든

요. 당시 실록을 지켜낸 백성들이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갖은 채로 좀비가 된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그때의 백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당신들이 지키신 기록을 잘 보존할 테니 우리에게 내주고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다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었어요. 관광객이 실록을 저희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런 말을 여기에서 한 번 뱉어보는 거죠( 문화기획자 A).

관광객에 따라서는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역사적 기원과 유래, 원형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문화기획자는 전통문화 요소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흥미를 유발하고,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스토리텔링과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문화기획자는 전통문화를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 ‘전통’이라는 단어 대신 ‘우리 옷’, ‘우리 술’, ‘우리 놀이’와 같이 ‘우리’라는 단어를 선호한다. 관광객은 전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보존해야 하고, 어디까지가 전통인지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면 ‘우리’라는 단어는 소속감과 친근감이 느껴지며 ‘전통’에 비해 보존의 필요성은 약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sup>55)</sup>

### 3)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사는 전주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매년 이수한다. 수혜여행단을 비롯한 10명 이상의 단체관광객들은 해설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는 편이다. 개별 여행객들은 정시 시간대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해설사들은 지자체가 만든 한옥 경관을 둘러볼 수 있도록 관광객을 인솔하여 한옥마을과 전주의 전통문화를 소개한다. 해설사는 진정성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관광객이 감흥과 여운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의 언어와 분위기를 매개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해설사 K)

진정성은 시대에 따라서 찾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볼 수 있겠죠.(해설사 K).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일만한 것이 십이 되

55) 서영임, 2022, 앞의 논문, 200쪽.

기도 하잖아요(해설사Y)

(1) 공간에 대한 스토리텔링

해설사는 역사적 건축물과 고지도, 자연물을 활용하여 한옥마을의 전체적인 공간 이미지를 스토리텔링 한다. 먼저 18세기 전주 부성 조감도를 그려놓은 고지도를 준비한다. 관광객은 마치 한 폭의 회화 작품처럼 예술적으로 전주부 전체를 묘사한 고지도를 보면서 품(品)자 배치로 구성된 전주부 전체의 공간을 상상할 수 있다.



그림 8. 전주 18세기 고지도(좌)<sup>56)</sup>, 요철 모양의 바닥 돌(우)

그리고 풍남문에서 경기전으로 이어진 요철 모양의 바닥 돌을 활용하여 전주 부성의 현재 위치를 설명한다. 전주 부성은 현재 사라졌지만, 경기전과 풍남문, 객사가 남아있고 전라감영이 복원되었다. 따라서 전주부 전체의 공간적 맥락 안에서 한옥마을 공간을 이해할 수 있다. 관광객에게 부성의 폭과 길이, 높이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면서 부성의 규모를 상상하게 만든다. 풍남문 밖으로 남 밖 시장이 이어져 있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전통문화를 누렸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해설사는 공공문화시설로 관광객을 인솔하면서 전주의 종이, 판소리, 출판문화, 음식문화를 유기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발아래를 가리키며) 지금 서 계신 곳을 보면 성곽 모양 보이시죠?  
예전에 한양도성처럼, 전주 부성이 있었어요. 부성 안에는 경기전뿐

56) 전주시 홈페이지



만 아니라 전주 완영 그리고 전라남·북도과 제주를 담당했던 전라 감영이 있었어요. 감영은 행정 업무를 보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종이 만들던 지소도 있었고 종이가 생산되다 보니 책판도 만들고, 부채도 만들었답니다. 중요한 분들이 오면 음식도 대접해야겠죠. 풍남문 밖으로는 조선 시대 전국 쌀값을 결정했을 정도로 규모가 컸던 남 밖 시장이 있었어요. 시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였겠죠. 모이면 일하고 나서 즐길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리꾼도 모여 들고 소설책도 만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주가 문화의 중심역할을 하게 되었어요(해설사 K).

또한, 관광객을 600년 은행나무로 인솔한다. 이 은행나무는 고려 말 월당 최담이 심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은행나무 뒤로 최 씨 종대<sup>57)</sup>가 자리 잡고 있다. 해설사는 최 씨 종대와 라한호텔 사이 두 블록 내에 1960대 이전 한옥들이 많고, 아직도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처럼 한옥마을의 공간별 특성을 설명하면서 한옥마을의 역사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경기전과 전주향교 등 역사적 건축물은 사적과 보물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선조들의 세계관이 엿보이는 건축물의 공간 특성 및 전통문양, 드무, 은행나무 같은 여러 상징물에 담긴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한다. 경기전, 조경묘, 향교 앞에 세워진 홍살문은 세속적인 바깥 세계와 신성한 경기전을 구분하는 상징적 경계임을 강조한다. 외삼문, 내삼문을 지나면서 동입서출(東入西出) 규범을 설명하면서 관광객도 이 규범을 준수하도록 한다. 내삼문과 진전 사이에 놓여있는 삼도(三道) 중 가운데 넓은 길은 신이 다니는 길로 관광객들이 오른쪽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인솔한다. 건물의 기둥과 주춧돌을 설명하면서 천원지방(天圓地方) 우주관과 음양 사상에 따른 건축 원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둥그런 기둥은 하늘로 양을 상징하고, 각진 주춧돌은 땅으로 음을 상징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위계가 높은 건물에서만 둥그런 기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경기전의 건축학적 위상을 강조한다. 진전에서 과거 왕을 중심으로 한 방위관을 설명하면서 예전에는 왕이 북쪽에 앉아서 밝은 남쪽을 바라보았기에 출입문이 남쪽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진전 앞마당에 놓인 여섯 개의 ‘드무’와 진전 전면부에 있는 자라 한 쌍의 상징적 의미, 진전 건물 내부에 있는 용봉선, 칼 같은 의장물과 천장과 처마를 화려하게 장

57) 한 종족이 대대로 지켜온 터전이라는 의미이다.

식하고 있는 단청과 박쥐, 모란, 연꽃 등 여러 길상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전주향교에서는 전묘후학(前廟後學) 공간 배치에 따른 대성전과 명륜당, 동무와 서무의 공간적 특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은행나무를 소개하면서 강한 냄새로 인해 해충을 쫓는 특성이 선비들의 청렴결백한 태도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한다. 관광객은 역사적 건축물을 보고 그 공간 안에서 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옥마을의 역사가 오래된 것처럼 상상할 수 있다.

## (2) 사람에 대한 스토리텔링

전주한옥마을 일부 문화시설에서는 문화기획자가 구성한 상설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해설사는 부채문화관, 대시습청 같은 문화시설을 방문하여 문화기획자가 유기적으로 구성해놓은 전시내용을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인솔하고 전주의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주한옥마을에서 활동하는 한지장, 예술작가들의 공방을 방문하여 생산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부채문화관에서는 문화기획자가 구성해놓은 부채제작과정과 동영상을 관람하면서 합죽선을 만든 장인의 정성에 관하여 스토리텔링을 한다. 전주전통한지원에서는 한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관광객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한다. 전주전통한지원에서는 기계화된 반개량 방식이기는 하지만 한지장이 직접 한지 받을 사용해서 손으로 초지를 뜬다. 관광객들은 한지장이 한 장의 종이를 떼서 파란 줄(베계)을 종이의 가장자리에 놓고 차곡차곡 쌓는 과정부터 건조장이 종이의 물을 뺀 후 다시 파란 줄을 제거하고, 종이를 한 장씩 떼어낸 후 첩판 위에서 빗자루를 쓱쓱거리며 재빠르게 건조시켜 한 장의 종이를 완성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한지원을 나오면서 해설사는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과거의 생산양식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이야기하면서 한지와 이를 만든 사람들의 정성과 노고를 연결 짓는다.

한지는 아흔아홉 번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만들어진다고 해요. 일백 백(百)에서 한 획을 빼면 흰 백(白)자가 되지요. 그래서 백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여기 이 닥나무 껍질에서 한 장의 종이가 나오기까지 그만큼 어려웠지요(해설사K).

경기전 어진박물관에는 ‘태조어진 이안행렬도’를 한지 인형으로 만들어 입체적으로 전시해놓았다. 이 작품은 한옥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지공예 작

가가 제작한 것으로 작가의 공방에도 ‘영조 정순왕후 가례도감의궤’의 한 장면을 재현해놓은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해설사는 관광객을 인솔하여 작품을 관람하면서 공방에서 한지 인형을 만들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해설사의 공간과 사람에 대한 이러한 스토리텔링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은 상업화된 경관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해설사는 관광객들에게 전주한옥마을은 지가(地價)가 비싼 도심 안에 있으며, 사유재산으로 한옥 주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한옥을 유지·보수하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관광객은 해설사의 설명을 수용하면서도 한옥마을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더라도 한옥 경관에 있어서만큼은 이상적으로 전주시와 마을 구성원들이 협의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한옥 관념과 일치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sup>58)</sup>

## 5. 결론

전주한옥마을은 전주시를 전통문화도시로 인식시키는 중심적인 공간으로 전통문화를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곧, 관광을 매개로 대중들의 전통문화 인식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진정성은 사람마다 자신의 관념이나 기억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관광만족도나 장소 애착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광 욕구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관광객의 전통문화 인식을 재구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자로서 지자체, 문화기획자, 해설사가 전통문화 진정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만들어나가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관광생산자인 지자체, 문화기획자, 해설사는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방문객들이 한옥마을을 종합적인 전통문화공간으로 인식하고, 전통적인 감성을 충분히 느끼면서 즐길 수 있도록 생산자 나름대로 해석한 전통문화 진정성을 구성해가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관광객들이 관광 매력물을 전통문화 요소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하거나 관광객들이 관광 매력물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했다면 진정성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먼저, 전주시는 문화유산 전문가를 초빙하여 일제강점기 훼손되었던 조선시대 문화유산을 복원하여 조선왕조 본향으로서의 상징성을 확보했다. 이후 전통 주거 양식으로 인식되는 한옥을 보존하고 전통문화거리를 조성하여 한옥

58) 서영임, 2022, 앞의 논문, 200쪽.

경관을 재구성했다. 그리고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한옥으로 지어진 거점 문화시설을 건립하였다. 이후 관광객들이 전통문화를 충분히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가고 있다. 전주시는 관광지화 이후 나타난 변화에 대응하면서 전통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마을 구성원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설득하기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개정하여 행정규제조치를 강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보기에 주요 가로에 상가로 활용되고 있는 한옥은 자신들의 생각하는 한옥 이미지나 정서와는 일치하지 않기에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에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을 근대 도시 한옥의 변화과정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표현한다. 곧, 시간성에 주목하여 전주한옥마을이 특정 시점에 조성된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백 년의 역사가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관광객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한옥 이미지를 볼 수 있고, 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보다 전통적인 한옥 경관이 만들어지기를 바랐다.

문화기획자는 전통문화의 보존뿐만 아니라 계승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와 전주시 정책의 큰 흐름과 전통문화의 역사적 맥락, 현대인들의 정서와 감성을 고려하여 현대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다. 관광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대중문화 콘텐츠와 이미지를 활용하고,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관광객과 전통문화, 관광객과 관광객, 관광객과 운영자 간 충분한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주관적 진정성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합죽선처럼 과거에는 진상품이었고 현재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서 사회적으로 그 예술성과 우수성 등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 그 역사성과 전승 과정 그리고 장인들의 정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해설사는 진정성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되어 변화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언어와 분위기를 매개로 관광객을 설득시키고, 감흥과 여운을 전달함으로써 진정성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했다. 역사적 건축물, 고지도, 자연물을 매개로 전주 부성 공간을 스토리텔링 하여 관광객이 한옥마을의 공간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문화기획자가 유기적으로 구성한 전시를 관람하거나 전주한옥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인과 작가의 공방을 방문하여 종이나 인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정성과 노고를 가시화한다.

본 연구는 전주한옥마을이 전통문화관광지로 개발되는 과정과 그 결과 만들어진 전통문화자원을 살펴보고, 관광생산자에 의해 전통문화 진정성이 만들어지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진정성이 만

들어지는 과정을 공시적 관점에서만 분석하여 통시적 변화상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전주시가 전라감영을 복원하고 후백제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를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논문접수일: 2022. 10. 30. / 심사개시일: 2022. 11. 23. / 게재확정일: 2022. 12. 12.

## 참고문헌

### 1. 단행본

전주시, 2014, 『시정백서』.

한국관광학회, 2019, 『문화관광론』, 백산출판사.

### 2. 논문

고평채, 2011, 「전주한옥마을 보전정비사업에 따른 주거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김동영, 2010, 「신예술가집단의 라이프스타일과 도심활성화: 전주한옥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4호, 3-36쪽.

김연선, 2019,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의 관광동기가 만족도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권 1호, 196-204쪽.

김영훈, 2000, 「전통문화의 시각원리 연구-영상인류학적 모색」, 『민족과 문화』 9호, 369-385쪽.

김윤상, 신병욱, 남해경, 2018, 「Space Syntax를 응용한 전주한옥마을 근대한옥의 평면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34권 4호, 35-44쪽.

김지홍, 2014, 「1960~70년대 국가건축사업과 전통의 재구축」,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남진원, 2019, 「전주한옥마을 방문수요함수와 소비자잉여 추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서영임, 2022,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관광에서의 진정성 해석과 협상」, 『지역사회연구』 30권 2호, 185-209쪽.

오명석, 「1960-1970년대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담론」, 『비교문화연구』 4호, 121-152쪽.

이선희, 2008, 「전통문화구역 정책이 주민사회에 미친 영향: ‘전주한옥마을’을 사례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조아라, 2009, 「문화관광지의 문화정치와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 『대한지리학회지』 44권 3호, 240-259쪽.

진명숙, 2014, 「주거지에서 관광지로: 전주한옥마을 관광지화의 명암」, 『지방사

와 지방문화』 17권 1호, 177-208쪽.

진명숙, 2017, 「전주한옥마을 관광지화와 결사체정치」, 『비교문화학』 63호, 157-192쪽.

진명숙, 황인욱, 허명숙, 이근영, 2014, 『전통문화도시 조사·기록화 사업-2년의 기록』, 전주문화재단.

키무라 시세이, 2016, 「‘진정성’구축과 복수성: 동아시아 군함도(軍艦島) 사례에서」, 『아시아리뷰』 6권 1호, 317-338쪽.

황인욱, 2014, 「이상주의적 구도심 보전 및 개발계획의 성립과 변형-전주한옥마을 조성사업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2권 4호, 161-185쪽.

### 3. 검색자료

『경향신문』, 문공부 문화재관리국 10개년 계획 확정발표 본격 착수, 1980.03.04.

『경향신문』, 전주시 행정심판 패소, 2017.01.23.

『동아일보』, 이조문화권 만드는 고도 전주, 1976.10.27.

네이버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aver> (검색일: 2021.06.20.)

우리놀이 마루달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aver?blogId=ktcc\\_play](https://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aver?blogId=ktcc_play) (검색일: 2022.10.21.)

인스타그램 전주부채문화관, <https://www.instagram.com/jeonjufan/?hl=ko> (검색일: 2022.08.02.)

전주시 의회 회의록 제206회 제4차 본회의, [https://council.jeonju.go.kr/source/korean/main/main\\_new.html](https://council.jeonju.go.kr/source/korean/main/main_new.html) (검색일: 2021.08.24.)

전주여행후기, <https://blog.naver.com/zjavbxj5175/222765355316> (검색일: 2022.10.09.)

전주한옥마을 홈페이지, <http://hanok.jeonju.go.kr/> (검색일: 2021.10.20.)

<Abstract>

## **Creating Authenticity of Traditional Culture in Jeonju Hanok Village**

Seo, Yeoung-im \*

This paper reviewed the case of Jeonju Hanok Village, a traditional cultural tourist destination, to study how tourism producers are creating authenticity in the process of utilizing traditional culture. Jeonju City restored the cultural heritage symbolizing the Joseon Dynasty, the golden age of Jeonju, and created a traditional cultural street by implementing a hanok preservation policy since the 2000s. The administrative law is revised to strengthen regulations. Residents are persuaded to cooperate so that the created landscape can be maintained. Experience programs are being expanded in connection with cultural planners so that tourists can fully experience traditional culture in this space. Based on the traditional cultural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cultural planners create exhibition, education, and experience programs so that tourists can experience the values or elements inherent in traditional culture. In the case of cultural heritage, historicity or transmission is emphasized, and if historicity is not clear, sufficient interaction between tourists and traditional culture, tourists and tourists, and cultural artists or operators is promoted. The cultural tourism commentator allows tourists to recognize Hanok Village in the overall space context of Jeonju Busung through storytelling about the space and people of Jeonju Hanok Village. In addition, the commetator leads visitors to craft shops in the village to experience the process of making produc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expanded from previous studies focused on internal stakeholders such as villagers, artists, associations, and tourists to understand the authenticity created by local governments, cultural planners, and cultural tourism commentators.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authenticity created by the tourism producer can be reconstructed through the process of interpreting and negotiating by tourists.

**Key Words** : Jeonju Hanok Village, Creating Authenticity, Hanok Landscape,  
The programs in traditional Korean culture, Commentators

---

\* Ph.D. studen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for the Archaeology and Cultural Anthropology